Switzerland Tourism.

# 이시영이 만난 스위스.

## 스위스 프렌즈, 이시영이 체험한 겨울 왕국 스위스

**스위스 프렌즈(Swiss Friends)'로 공식 임명되어 초청받은 스위스 여행**
**건강하고 활기찬 배우 이시영답게, 겉훑기 식 아닌 직접 체험한 스위스**
**스위스 취리히 현지에서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와 임명식 행사 가져**
**스위스 청정 지역의 숨은 명소들과 액티브한 체험 즐겨**

지난 1 월 24 일, 배우 이시영이 2022-2023 년 스위스정부관광청 홍보대사 '스위스 프렌즈(Swiss Friends)'로 위촉되었다. 특히 취리히 구시가지의 아름다운 전망대, 린덴호프에서 임명식이 진행돼 국내 팬들에게 깜짝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마틴 니데거(Martin Nydegger)와의 만남에서 스위스의 자연과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전해 듣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이시영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스위스 자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온몸으로 계절이 깃든 자연을 체험하는 여행을 즐겼다. 이는 단순한 관광의 개념을 뛰어넘어 현지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는 '슬로우 트래블' 방식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로 완벽한 것을 체험해 보며, 사람과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것, 로컬 액티비티와 지역색을 체험해 보는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에 부합한다. 특히 이시영은 이번 여행을 통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 여행 트렌드인 지속가능한 여행 방식에 대해 더 관심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시영은 실제로 체험형 여행의 일환으로 영남알프스와 자매결연을 한 티틀리스 산을 포함해 취리히, 체르마트, 루체른, 생모리츠 등 다양한 목적지에서 2-3 일씩 여유 있는 일정으로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체험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 라이프스타일을 느끼고 이해하는 경험을 했다.

이시영이 만난 스위스의 다채로운 면모를 소개한다.

### 1. 취리히(Zürich)

취리히는 스위스의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다. 유럽 심장부에 위치해 대도시의 현대적인 시설과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수년 동안 삶의 질에 있어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작고 컴팩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부띠끄 도시다.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다다(Dada) 운동이 탄생한 곳일 뿐 아니라, 프라이탁(Freitag) 가방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베티카(Helvetica) 폰트의 기원지이기도 하다. 노벨상 배출로 명성 높은 스위스 연방 공대의 연구자들과 구글 및 디즈니 리서치 같은 회사들도 취리히에 있다. 이렇게 역사, 경제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는 덕분에 2006 년부터 세상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스위스 프렌즈' 임명식 치른 곳, 린덴호프(Lindenhof)**

취리히를 가로지르는 리마트(Limmat) 강가, 최고의 전망대가 있다. 바로 린덴호프다. 이시영은 여기에서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마틴 니데거(Martin Nydegger)와 '스위스 프렌즈' 임명식을 가졌다.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프라우뮌스터(Fraumünster)와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가 보인다.

**취리히 호반에서의 조깅**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취리히 호반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거주지로 선망하는 곳으로, 티나 터너도 여기에 산다. 산책로는 느리게 걷기가 취리히의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 잡은 1800 년 대에 만들어졌다. 이시영은 호반에서 조깅을 하며 취리히 현지인들처럼 일상의 여유를 만끽했다.

**취리히 최고의 소시지**
슈테르넨 그릴(Sternen Grill)은 취리히 사람들이 최고라 꼽는 소시지 식당이다. 하얀색 브라트부어스트 하나에 단단한 빵 한 덩이를 곁들여 먹으면 든든한 점심이 된다. 취리히 직장인들의 단골집이다. 이시영은 호반 조깅을 마치고,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소시지 하나를 맛있게 먹었다.

**린트(Lindt) 초콜릿 팩토리**
175 살이 넘은 스위스 국민 초콜릿, 린트는 1845 년에 만들어진 초콜릿 회사로, '린트 홈 오브 초콜릿(Lindt's Home of Chocolate)'이라 이름 붙은 박물관이 스위스 초콜릿 역사에 중대한 지평을 열었다. 2013 년에 설립된 자선단체, 린트 초콜릿 컴페티션 재단이 지원하고 추진한 이 대단한 프로젝트는 취리히 호반의 킬흐베르크(Kilchberg) 마을, 쇼코라덴플라츠(Schokoladenplatz)에 자리한 린트 & 슈프륑글리(Lindt & Sprüngli) 공장 부지에 만들어졌다. 이 박물관이 2020 년 5 월에 개관했다. 과거의 초콜릿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혁신적인 정신을 계승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랙티브한 방식을 이용한 전시, 리서치 시설, 제품 전시 외에도 세계 최대의 린트 초콜릿 숍, 린트 카페, 린트 초콜릿 코스를 운영한다. 건물 입구에는 8m 높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초콜릿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취리히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동도 편리하다.

이시영은 이곳을 찾아,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다. 초콜릿 시식도 실컷 했다는 후문이다.

## 2.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는 특별한 알프스 마을이다. 체르마트 주민의 절반에서 2/3 가 관광업에 종사한다. 그만큼 호텔과 리조트가 많다. 마을에는 휘발유 차량을 볼 수가 없다. 자동차가 발명된 1885 년 이래 휘발유 차량 진입이 허가된 적이 없는 진기한 마을이다. 주민들이 투표로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1947 년부터 마을 안에 전기차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1988 년이 돼서야 최초로 마을 내 버스가 운행된다. 주민들은 전기차를 몰고, 차를 가져온 여행자들은 아랫마을 대형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차로 올라와야 한다. 체르마트 호텔에서는 전기차로 투숙객을 픽업해 준다. 이시영도 숙소에서 마중 나온 전기차를 타고 친환경 이동을 했다.

척박한 알프스 마을이었던 체르마트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은 등반가 한 명 때문이었다.
1865 년 영국 등반가, 에드워드 윔퍼가 이끄는 7 명의 산악인이 처음으로 마테호른을 정복했는데, 하산하는 길에 한 명이 미끄러지며 로프가 끊어져 네 명이 20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지금은 약 3,000 명의 등반가가 매년 여름 체르마트를 찾는다. 체르마트에는 60 명이 넘는 전문 산악 가이드가 살고 있다.

**수네가(Sunegga) 스키장에서 생애 첫 스키 강습**
체르마트는 빙하가 있어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3,883m)에서 스키 타고 마을까지 직진할 수도 있는데, 체르마트에 있는 스키 슬로프 다 합치면 360km 이고, 25km

짜리 스위스 최장 스키 피스트도 체르마트에 있다. 4 천 미터 급 봉우리 47 개가 에워싸고 있는 스키장으로, 스키 타고 이탈리아 국경도 넘을 수 있다.

이시영은 체르마트에서 '생애 첫 스키' 체험을 했는데, 체르마트에서 겨울 휴가를 즐기는 전 세계 여행자들과 함께 섞여서 현지 스키 전문 강사에게 강습을 받으며, 정통 알파인 스키 자세를 배우기도 했다. 손자와 함께 스키를 타는 할머니, 가족끼리 스키를 가르치는 모습 등, 다른 여행자들이 겨울 휴가 보내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아들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 스키를 가르쳐 주고, 함께 스키를 타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헬리스키로도 유명한 체르마트에서 이시영은 호기심 가득 헬기에 오르기도 했다. 헬기에서 바라보는 체르마트의 절경에 투어 내내 탄성을 질렀다.

**고르너그라트(Gornergrat)에서 만난 눈밭**
고르너그라트는 전기로 운행되는 스위스 최초의 톱니바퀴 열차로, 정상에 서면 4 천 미터 급 봉우리 28 개가 병풍처럼 펼쳐진다. 이시영은 고르너그라트 산 중턱에 있는 이글루 빌리지를 찾았다. 로텐보덴(Rotenboden)에 자리한 이글루 빌리지는 실제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 이글루에는 스파도 마련되어 있어, 스위스 젊은이들에게 인기다. 이시영은 마테호른이 보이는 이글루 창가에 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스위스식 썰매, 터보건(Toboggan)**
스위스 곳곳에서는 '터보건'이라 불리는 알프스 전통 나무 썰매를 타볼 수 있다. 체르마트에서는 로텐보덴(2'815 m)이 터보건 코스로 유명하다. 로텐보덴에서 시작해 10 분 동안 1.5km 나 썰매를 지치고 내려오면 리펠베르그(Riffelberg: 2'582 m)에 도착하게 된다. 10 분마다 운행되는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스위스 연인들에게도 인기인데, 4 월 말까지 썰매를 탈 수 있다.

## 3. 여정 자체가 럭셔리 체험이 되어주는 빙하특급(Glacier Express)
체르마트에서의 일정을 마친 이시영은 다음 목적지인 생모리츠(St. Moritz)까지 스위스 최고의 파노라마 기차, 빙하특급으로 이동했다. 빙하특급은 체르마트와 생모리츠(St. Moritz)를 직행 연결하는 파노라마 관광 열차다. 스위스에서 손꼽히는 세계적인 VIP 리조트 두 곳을 연결해 주는 기차다.

1930 년 6 월 25 일부터 운행한 역사적 기찻길로, 291km 거리를 8 시간 동안 달리며, 알프스 가장 깊숙이 숨겨진 풍경을 보여준다. 7 개의 계곡과 291 개의 다리, 91 개의 터널 지나는 여정이 이어진다.

구름 속을 뚫고 올라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알프스의 비밀스러운 풍경과 위엄한 알프스 절벽을 지나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아찔한 돌다리 철교, 란트바써 비아둑트(Landwasser Viaduct)가 여정 중 하이라이트다.

스위스 연인들이나 유럽 여행자들은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 전 구간을 탑승하며 기념일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1 년씩이나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엑셀런스 클래스(Excellence Class)는 1 등석보다 더 좋은 칸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샴페인을 마시는 우아한 노부부가 종종 눈에 띈다. 엑셀런스 클래스의 컨시에지 서비스와 샴페인을 곁들인 5 코스 미식 코스는 여덟 시간 동안 이어지는 스위스 최고의 럭셔리 체험이 되어준다. 여정 중, 승무원들은 와인을 곁들인 향토식 5 코스 런치를 서빙한다. 엑셀런스 클래스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글래시어 바(Glacier Bar)"에서는 세련된 음료도 찾아볼 수 있다.

빙하특급 엑셀런스 클래스에 탑승한 이시영은 이동하는 여덟 시간 내내 5 성급 기차 서비스를 즐기며 휴식을 취했다.

**4. 생모리츠(St. Moritz)**
인구가 5 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약 150 여 년 전부터다. 1856 년 알프스 최초의 럭셔리 호텔인 쿨름(Kulm) 호텔이 요한네스 바트루트(Johannes Badrutt)에 의해 탄생하고, 스위스 최초의 지역 관광청이 이곳 생모리츠에 문을 열게 된다. 바트루트는 네 명의 영국 투숙객들에게 내기를 건다. '겨울에 다시 찾아오면 셔츠 바람에 발코니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게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 비용을 몽땅 물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생모리츠를 다시 찾은 네 명의 영국인들은 그 이듬해 부활절이 올 때까지 생모리츠에서 휴양을 하며 선탠을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다 돌아갔다. 이렇게 영국인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생모리츠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부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실제로 생모리츠는 온화하고 청명한 날씨가 특징인 '샴페인 기후'로 유명한데, 연평균 일조량이 322 일이나 된다. 영국 왕실 가문도 스키 휴가를 보내러 오는 곳이다. 1928 년 및 1948 년에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을 만큼 겨울 스포츠라면 일가견이 있는 곳이다. 호수에서 발생하는 열 활용해 호텔 난방하고, 케이블카 선로에 태양열 패널 설치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이다.

이시영은 생모리츠에 있는 우아한 칼튼 호텔 테라스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며 황홀한 풍경을 즐기고, 마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다.

마침 생모리츠 스노우 폴로 월드컵이 열리고 있었는데, '유럽 부호들의 놀이터'라는 별명다운 행사로, 눈밭 위에서 폴로 경기가 열리고, 모피 코트에 샴페인 잔을 든 관중들이 VIP 좌석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광경에 동참했다. 눈 밭이 하얗기 때문에 공은 빨간 것이 특징이다.

**5.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
레티셰 철도가 운행하는 알불라/베르니나 철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알불라 계곡과 베르니나 고개를 건너는 철도로, 톱니바퀴 없이 가파른 일반 철도를 나선형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대단한 기술인데, 이 철도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8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알불라 철도는 1903 년, 베르니나 철도는 1910 년에 완공된 유서 깊은 철도다. 이 철도를 달리는 많은 기차 중, 관광 열차 이름이 베르니나 특급이다. 생모리츠에서 이탈리아 티라노(Tirano)까지 잇는 베르니나 특급은 55 개의 터널과 196 개의 다리를 지나며, 엥가딘 계곡의 빙하부터 이탈리아의 야자수까지 하루에 이어준다. 아침에 빙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야자수 아래서 선탠을 즐길 수 있는 셈이다.

베르니나 특급을 운행하는 레티셰 철도는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철도회사로, 이미 2013 년부터 기관차와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수력전기로 전환했으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기차를 난방한다.

**아이스베그 엥가딘(Eisweg Engadin)**
엥가딘 계곡 얼음길이란 뜻으로, 3km 거리의 순환 코스다. 이시영은 이 얼음길을 찾아 스케이트에 도전했다. 이 코스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 엥가딘 계곡 하부에 있는 숲을 통과하는 코스로, 슈쿠올(Scuol) 및 센트(Sent) 마을 근교에 있다.

**알프 그륌(Alp Grüm).**

베르니나 특급은 알프 그륌부터 하강곡선을 그리며 이탈리아 야자수를 향해 고도를 하향한다. 이시영은 티라노까지 가지 않고, 알프 그륌에서 내려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생모리츠로 돌아가는 반일 일정을 선택했다.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륌.**
알프 그륌 기차역에 있는 레스토랑, 알베르고 리스토란테의 다채로운 메뉴에는 스위스 및 그라우뷘덴 향토 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공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메밀 파스타, 피초케리(pizzoccheri)가 특색 있다. 그라우뷘덴에서 만드는 건조육이 스위스 내에서도 고급스럽기로 유명한데, 알프스의 맑은 공기에서 고기를 말려, 더 맛있다고 자부한다. 베르니나 산맥의 야생적인 풍경과 만년설, 팔뤼(Palü) 빙하, 햇살이 입맞춤하는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어 사철 인기 있는 식당이다.

**6. 엥겔베르크(Engelberg)**
독어로 '천사의 산'이란 뜻의 엥겔베르그는 주변으로 웅장한 알프스산맥이 둘러싸고 있고, 전나무가 무성하며, 널따란 초록 들판과 곳곳에 크리스털 같은 호수가 있어, 여행 중 한때 자연 속에 파묻혀 여유를 부리기에 그만인 곳이다. 마을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은 1120 년 설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마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수도사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일하며, 가르친다. 치즈도 만든다. 이시영은 다음 목적지로, 이 천사의 마을을 찾았다.

**티틀리스(Titlis)**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로 유명한 티틀리스는 중앙 스위스 알프스와 빙하의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곤돌라가 정상에 도착하는 마지막 600m 구간 동안 360 도 회전을 1 회 하며 사방의 파노라마를 골고루 보여준다. 알프스의 하늘을 둥실 떠오르며 5 분 동안 천천히 회전을 하는 티틀리스의 회전 곤돌라에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우리 알프스(Uri Alps), 오브발트(Obwald)의 멜히탈(Melchtal) 계곡, 루체른 호수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이시영은 티틀리스를 찾아 빙하 체험을 다양하게 즐겼다.

**클리프 워크(Cliff Walk).**
해발고도 3,041m 위에 설치된 흔들 다리를 건너 겨울 왕국으로 입장해 보자. 단,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좋다. 티틀리스 산등성이에서도 500m 나 떨어진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티틀리스 클리프 워크는 150 개의 스릴 넘치는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이기도 한 이 다리를 건너다보면, 티틀리스 산 깎아지른 벼랑 밑으로 펼쳐진 빙하가 한눈에 들어온다. 1m 너비에 100m 나 되는 길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알프스의 숨은 비경을 짜릿하게 감상할 수 있다.

**빙하 동굴(Glacier Cave)**
티틀리스에 정상에 자리한 이 빙하 동굴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얼어붙어 만들어진 공간으로, 150m 길이의 터널이 수개의 방향으로 펼쳐지며, 빙하 표면 아래 20m 까지 이어진다. 동굴 내의 안개는 얼음 안에 갇혀 있는 작은 에어 포켓 때문에 만들어지고, 동굴 내의 푸른빛은 빛의 반사로 만들어지는 신비한 풍경이다. 빙하 동굴 안을 거닐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한여름에도 -1.5˚ C 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채비해야 한다. 티틀리스 케이블카 정상 역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고, 입장료도 무료다.

**아이스 플라이어(Ice Flyer)**

신비한 빙하의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특별한 리프트가 운행된다. 아이스 플라이어라는 이름의 리프트를 타면 아래로 빙하의 풍경이 펼쳐진다. 야생 동물 발자국만 새겨진 설원과 빙하, 10m 깊이의 빙하 크레바스를 볼 수 있다. 여름에는 티틀리스 정상 역부터 설원이 펼쳐진 빙하 위 스노우 파크까지, 겨울에는 스키장까지 여정을 이어간다.

**스노우슈(Snowshoe) 하이킹**
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고안된 넓적한 신발을 신고 눈 위를 걷는 액티비티로, 겨울에도 집안에 있기 싫어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개발한 스노우슈 덕분에 겨울 눈밭 하이킹이 편리해진다.

## 7. 루체른(Luzern)

루체른보다 더 평화로운 겨울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들과 숍 주인들, 사업가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들에게 겨울은 특히 더 가족같이 따사로운 계절이다. 이시영은 루체른에서 스위스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차역에서 내려 바로 옆에 있는 문화 컨벤션 센터, 카카엘(KKL: Culture and Convention Centre)로 들어가 보면 좋은데,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디자인한 것으로, 도시를 빛내는 건축물 중 하나다. 카카엘 안에 자리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나 음료를 즐기다가 밖을 내다보면 운치 있는 루체른의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카카엘을 나와 구시가지 쪽으로 향해 걷는다. 박공지붕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중세 다리, 카펠교(Chapel Bridge)는 루체른의 상징이 되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달린 목조 다리 중 하나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성곽, 무제크마우어(Museggmauer)을 따라 거닐며 눈 덮인 지붕으로 가득한 구시가지의 파노라마를 한가득 담아보아도 좋다.

**루체른 호수 유람선**
루체른 호수의 원칭은 피어발트슈태터(Vierwaldstätter)다. 호수의 최대 폭이 38.1km 로, 루체른과 플뤼에렌(Flüelen)을 잇는 구간이다. 최대 너비는 3.3km, 가장 깊은 수심은 214m, 총 수면 면적은 114 km2 로, 스위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에 해당한다. 이시영은 루체른 호수 유람선에 올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평화로운 풍경을 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루체른 호수 곳곳을 연결하는 유람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행된다. 바로 옛날 방식 그대로 수증기로 운행되는 증기선과, 현대식 모터로 운행되는 모터선이 있다. 특히 증기선은 1900 년 초반에 건조된 선박들로,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시영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 도시부터 작은 마을과 산골마을까지 스위스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는데, 스위스 전 지역의 기차, 버스, 케이블카, 유람선, 트램을 모두 타 보며 스위스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데에서 여행의 큰 매력을 발견하기도 했다. 스위스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모습, 아이들의 등교하는 모습, 주말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예비역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대중교통 안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1 월 23 일부터 2 월 4 일까지 11 박 13 일의 여유로운 일정을 마친 이시영은 “이번 스위스 여행을 통해 각 지역의 지역색과 스위스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서 참 특별했다. 특히 스위스의 겨울 풍경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직접 체험해 본 것이 참 소중하게 기억된다. 올 6 월에 스위스를 다시 찾아 스위스의 여름이 내어 주는 다양한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그 소회를 밝혔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11 박 13 일이라는 길고 꽉 찬 일정으로 힘든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영을 비롯한 동행자들은 스위스 현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여행에 임했고, 모두 건강하게 귀국하여 자가격리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했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